



달아오르는 6·13 대전시장 선거 '후끈'

설날 앞두고 민심 잡기 위한 예비후보들 발걸음 빨라져

오는 6·13 대전시장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출마 후보군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강력한 대전시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박범계 의원이 출마 포기를 하면서 다소 복잡해진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지난해 29일 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표발을 누비고 있다. 허 청장은 이날 출마 회견문에서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150만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면서 "그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대전으로 저의 고민과 실천의 대상을 옮겨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출마 배경으로 지금 대전은 동·서간의 격차로 도시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고,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 있다. 이시기를 잘 헤쳐갈게 대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맞을 수 있다. 산업화시대의 '속도와 효율'로 도시발전이 이끌어가던 낡은 리더십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오는 12일 유성구청장 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당내 경선에서 뛰어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국회의원 역시 대전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공식 출마 시일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의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사실상 경선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이 의원을 따르는 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이 선거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출발은 지난달 6일 대전지역 당원·지지자 200여 명을 이끌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하고, '노무현 정신 계승'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전지역 내 노사모노무현을 사모하는 모임과 문맹(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박영선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전시장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심 중에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출마가 확정적이다. 특히 최근 지역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데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박 시장은 이번 달 중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유성을 조직위원장에게 임명된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선거 캠프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전시청 1층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육 교수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전일 대전시장들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면서 대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방향 5가지를 제언했다.

그가 제시한 주요 정책은 엑스포 유지를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 대전공공문화위원회 구성,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초광역권 발전 방안, 과학연구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정책 등이다.

사실상 육 교수의 이 같은 행보는 전일 시장이면서 당내 경선 경쟁을 해야 하는 박 전 시장을 겨냥한 행보로 분석된다.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일찍이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에선 남충희 대전시장위원장은 설 연휴 전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의당에서는 김윤기 핵재처리 실험단지 30km연대 공동대표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영동고속도로 및 국도6호선·지방도456호선 등 3개 구간 59.35Km
오는 28일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일반 차량 이용 제한

도로교통공단은 5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의 원활한 수송·이동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올림픽 전용차로(Olympic Lane)'를 운영한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때 성화점화 장치 폭발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해 경기일정에 맞추어 정시에 선수단을 수송하는 데 차질이 발생해 2000년 호주 시드니올림픽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대회관계자들이 경기장과 선수촌, 각종대회 시설 등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자동차 전용차로를 말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구간은 태기교차로~대관령IC교차로(국도 6호선, 지방도 456호선) 39.6km 구간과 대관령IC~강령JCT(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9.75km 구간에서 인종 1차로이다. 이들 구간의 2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 동계 패럴림픽 기간에는 고속도로 구간의 전용차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 가능 차량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차량과 36인승 승합자동차로 한정된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는 9인승 승용·승합 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지만 일반 차량의 운행은 제한된다.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는 운전자들이 차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청색 점선 및 오프마크를 표기하며,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 및 계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평터널과 속사터널의 경우 올림픽 전용차로만 운영되어 일반 차량은 별도의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속사터널 앞대관령방면, 속사삼거리→속사1교차로 구간, 오대4교차로~장평면 방면, 가우1교차로→오대4교차로 구간의 경우 전용차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전용차로(160km)에 대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특정

경기가 있는 날에는 버스와 택시, 응급차량 및 올림픽 관련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은 대회 개막 11일 전부터, 2008년 중국 베이징올림픽에서는 개막식 19일 전부터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하며 일반 시민의 승용차운행을 억제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했다.

특히 2014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에서는 '소치동계올림픽 도로교통 특별법'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소치 시내 전체 도로를 올림픽 전용차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일반 차량의 경우 소치동계올림픽 조직위의 허가를 받은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올림픽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차량의 진입 제한 및 화물차 진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는데다 주요 경기 열리는 기간에 4일(15~18)의 설 연휴까지 포함되어 있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올림픽 전용차로를 배려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충청~호남 잇는 개발 적극 나서자”

충남도, 충청·호남·강원 8개 시·도와 공동건의문 발표



충남도가 대전·세종·충북, 강원, 광주와 전남·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자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한 8개 시·도, 변재일 국회의원,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반영을 위한 '강호축 공동토론회'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원철 도 정부부지사(비롯한 8개 시·도 단체장·부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공동건의문 낭독, 기조연설,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8개 광역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도약했으나, 근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모든 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8개 광역자치단체는 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염원을 담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 연계한 국가혁신벨트 조성 △백두대간 관광생태벨트 조성 △강원~충청~호남 연결 간선교통망 등의 강호축 공동 발전 사업을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윤원철 부지사는 "우리 사회는 1987년 이후 축적된 대한민국의 역량과 민주주의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맞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이미 시대적 요구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부지사는 이어 "지금은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 국민의 의사 반영된 분권과 협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동력을 준비할 시기"라고 덧붙이며 "이번 공동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2018 겨울공주 군밤축제 성료

공주 대표 특산물 밤 홍보 쏠쏠... 경제 활성화 교두보 마련



공주시가 공주시의 대표 특산물인 공주 밤 홍보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 공주시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18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지난 4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 등에 따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사계절 축제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문을 연 2018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4일간 약 8만 8천여 명이 넘는 인파가 행사장을 방문, 성황 속에 마무리 됐다.

특히, 주말인 3~4일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 3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지역별 관광객 또한 올해 처음 개최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전, 세종부터 서울, 경기, 경상, 전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총 관람객의 60~70%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 콘텐츠 또한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공주 지역 대표 특산물

인 공주밤을 활용한 군밤 그림존, 군밤 화로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을 망라한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고맛나루 정터, 공주시 브랜드 홍보관, 공주밤 가공식품 판매 등 판매부스부터 SK 텔레콤 티움 모바일관, 도전 군밤 올림픽, 아이스 링크 운영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를 함께 운영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케 했다.

아울러, 이번 축제는 행사 장소를 공주 산성시장 일원에서 개최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물론 지역의 밤 농가 참여율을 높이며 농가소득 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도 훌륭히 해냈다는 평이다.

게다가 여타의 겨울축제에서 볼 수 있는 얼음, 조명 등을 활용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대표 특산품인 밤과 불을 활용한 군밤을 소재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공주 밤에 대한 홍보효과와 함께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는 성과도 함께 얻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성과와 가능성 속에서도 많은 인파를 수용하기에는 행



시장이 다소 좁았다는 점과 이에 따른 쉼터,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 등은 보완할 점으로 꼽혔다.

공주시 문화관광과 관광축제팀 황규하 담당은 "올해 처음 열린 2018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축제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가장 '자연'스럽게 달리는 기술

빠르게 달리는 기술에서 안전하게 달리는 기술까지 100% 안전 수업을 통한 기술이 발달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자연까지 생각되고 보호하는 기술을 향유하는 일입니다. 신화엔 '엔프렌'은 안전 달리는 일과 편안한 환경 향유를 위한 자연과 인공에 어울립니다.

enfren

안프렌 효과란? 편안한 달리는 일과 안전한 달리는 일과 편안한 환경 향유를 위한 자연과 인공에 어울립니다.



HALKOOK

서천군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나선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 2월부터 11월까지 지원 추진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형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2월부터 11월까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군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미니태양광은 배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거치해 설치하는 방식의 발전소로 세대 당 260W 기준으로 월 27.3kWh 발전이 되며 월간 전기요금 5천~1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더해 W당 2,010원 보조되며 최대 260W 50여만 원을 지원받아 2~3년이면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천군은 지난해 실시했던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60가구를 선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업체 모집과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3월 초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참여업체와 세대가 결정되면 일일영역을 보조 지원한다.



천안배 상품개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천안시는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천안배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배 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천안배 가공사업은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2017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부터 배 건과(제품명: 쫄쫄뽕 배말린)를 본격 생산·판매하고 있다.

배 건과를 생산 중인 하늘아삭(주)대표 정강희는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규격 외 품질의 배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제품은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점, 충남수과매캐조합,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고 상품이 최상급이나 출하되지 못한 농산물을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좋고 식감이 우수하며 사계절 어디서든 천안배를 즐길 수 있어 출시 이후 227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계속 발굴·개발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위주에서 벗어나 국외와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6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훈 농업정책과장은 "지역농산물은 생산 못지않게 판매가 중요한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과 판매망을 구축해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1·2·3차와 연계해 지역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1개 사업에 3년 동안 30억원(국비 50%) 투입, 제품과 브랜드 개발, 마케팅, 시설과 장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천안=채기병기자



롯데 '마텔 패밀리세일' 인기 토마스 등 최대 88%까지 할인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은경)이 6일까지 9층 특별매장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완구브랜드 마텔 패밀리세일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마텔 패밀리세일'은 지난해에도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진행됐으며, 전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마텔, 피셔프라이스, 욱토티, 토마스, 핫휠 등 총 10개 완구브랜드의 인기상품 150여종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20%에서 최대 88%까지 할인해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브랜드인 마텔은 미니언즈, 토마스와 친구들, 피셔프라이스 등 친숙한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비인형은 어른들도 좋아하는 인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실시

아산시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를 올해 6일부터 3월 7일까지(제25차 조사)기간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약 2만 4000개로,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44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는 국가지정통계(제10137호)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올해 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 접수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2018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에 신청 받는 주요 사업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의 작물연작장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등이다.

청양=정성범 기자



아산시 행복기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아산시(시장 박기왕)는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 행복기움추진단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분기 정기회의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정기회의는 아산시 행복기움추진단협의회 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4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리더로서 필요한 역할 ▲2018년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사업 설명 ▲은주종합복지관 기관 소개 ▲후원금 관리 교육과 3개면 추진단장의 사례발표를 갖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선정된, 도고면 행복기움추진단장의 사례발표로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및 읍면동 추진단운영 시 예외사항 등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 행복기움추진단 사업을 공유하고

아산=리량주기자

철도공단 충청본부 2018년 1조 2448억 원 집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동철)는 2018년 한 해 동안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장항선개량 2단계(신성~주포, 남포~간치) 철도건설 등 총액 5개 철도건설 사업에 1조 2,448억 원을 집행한다.

충청 본부는 사업비 집행을 통해 2조 7,93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2,572여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해 사업비 중 61%에 해당하는 7,6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내수 진작을 유도한다.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송산)에 6652억 원, 중부내륙철도1·2단계(이천~충주~문경)에 3,690억 원, 장항선개량 2단계(신성~주포, 남포~간치)사업에 762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사업 전 공구기에 걸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며, '19년 완공예정인 철도중합시시설로와 홀도지하화 건설사업 등에 1026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권 철도건설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충청 본부는 관내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청렴·안전·품질관리 간담회를 지난 1월 23일(화)~26일(금)까지 시행했다.

김정환기자

갤러리아타임월드 설 선물 제안전

갤러리아타임월드(2018년 무술년 황금계)의 해를 시작하는 설을 맞아 지난날 26일부터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각지의 장인들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재배하고 채취한 건강한 먹거리를 업선해 만든 오직 갤러리아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최고의 설날 선물을 소개해본다.



1. 5~10만원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고,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 확산에 따른 중저가 세트 및 실속세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의 제품들로 엄선한 5~10만원대의 선물 세트를 전년 대비 20% 늘려 준비했다.

명절 대표상품으로 꼽히는 정육의 경우 10만원이하 상품 품목을 늘려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충남지역 로컬 한우 브랜드 공주얹밤한우 4호(9만 5000원), 한우 만족세트(10만원), 흑모 화우 와규정육세트(10만원), 청정우 구이세트(9만9000원), 청정우 정육세트(6만원)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 청과에서는 레드향 세트 선(9만5000원), 한라봉 세트 선(8만9000원) 등이 추가됐다.

2. 최상의, 최고의 명품 선물세트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우수한 제



품단을 선별하여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에 좋은 명품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갤러리아와 27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명품 한우 '강진맥우 명품세트 2호(80만원)'는 친환경 특구로 지정된 전산 강진군 울진면과 강진맥우작목반 계약농가에서 발효숙성 마끼리를 먹고 자란 한우로 까다로운 한우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한우만이 '강진맥우'로 생산되기 때문에 믿고 선별할 수 있는 명품 선물이다.

제주 흑돼지 세트(15만원)는 일반 돼지에 비해 체구가 작고 사육기간이 1~2개월 긴 대신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고의 명품 선물로 자리를 지키는 '영광곰비 세트 특2호(80만원)'는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염장 건조한 최상품 곰비로 준비했다. 제주의 온화한 바람과 풍부한 햇살속에 자라나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 '대왕 한라봉세트(20만원)'도 마련되어 있다.

3. Onlygalleria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고메이494의 셀렉션은 갤러리아만의 정성과 노하우가 담긴 갤러리아 대표 선물로 믿고 선택 할 수 있다.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전북 고창'의 햇 참깨, 햇 들깨만을 정제해 넣은 온도에서 볶아 깨끗하게 정제한 고메이494 대표상품인 '고메이 494 국내산 참들기름 세트1호(6만5000원)', '국내산 참기름세트1호(8만3000원)'와 청정지역 경북 영주의 문화재로 지정된 500년 고백에서 6대에 걸쳐 내려온 비빔밥 전수관에서 풍겨져 내려온 비빔밥을 전수받은 중가집 머느리가 정성스럽게 담긴 전통 된장, 고추장으로 조화가 이룬 '고메이494 전통장 세트1호(4만7000원)', 식감이 부드러운 누구나 좋아하는 충남 서천산 재래김인 '고메이494 저온숙성김 선호(3만5000원)'는 바삭하고 고소한 풍미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명품김을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캔과 봉으로 준비했다.

더불어 '고메이494 유기농 오곡세트(9만8000원)', '프리미엄 견과세트3호(3만9000원)' 등이 더불어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레이블에 그려진 강아지가 인상적인 '야드북 2016 레드&하이트 와인세트(6만5000원)'는 오직 갤러리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선물로 특별한 분들에게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4. 인기가구 트렌드 반영한 스킵 기프트
1~2인 가구 증가에 부합하는 갤러리아만의 소용량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한우등심살고기(12만원), 돈육 구이류 MAP팩 세트(5만5000원), 사과/배 세트 미(5만원), 송의향고 진품세트(5만원) 등 다양한 가격대의 고급스러움까지 겸비한 스킵 기프트 세트를 내놓았다. 또한 스테이크와 로스트팬, 소시지로 구성된 제주참 팔도세트(8만원), BBQ폭립 세트(7만원), 오리훈제모듬 2호(7만5000원)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간편식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5. 아릅드리 선물세트
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역 농수산물 사업활성화를 위해 상생경영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 우수상품에 대한 수요에 맞춰 지역상품을 활용한 선물세트도 판매한다.

대한민국 특산품인 고려인삼을 구중구포해 탄생한 흑삼은 저온에서 추출해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금산 금흑삼 세트1호(29만8000원)'와 '서산 명가조청 세트 3종(5만3000원)', '별맛길 광천특산물세트1호(5만원)', '태안 송화염 세트(4만원)' 등 다양한 우리 지역 우수상품들이 설 선물로 판매된다.

6. 건강기프트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선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높은 항산화 능력을 지녀 노화방지, 시력보호, 고혈압, 심장질환, 향암 등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아로니아 제품으로는 서산 아로니아 2호(9만8000원), 아로니아오리지널 1호(6만8000원)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이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유명한 GMS 특마는 진액(8만원), 급격한 체력저하나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9만6000원)과 견과믹스, 캐슈넛, 아몬드, 호두, 잣 등을 6개의 병에 나눠 담은 프리미엄 견과세트(9만원)도 만나 볼 수 있다.

송병배기자

백석대학교-미국 괌커뮤니티칼리지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월 5일 미국 괌에서 괌커뮤니티칼리지(총장 마리 오카다 [Mary Okada], Guam Community College)와 교류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양 대학은 ▲교육 및 연구자료 등의 정보 교류 ▲교수 교류 ▲재학생 인턴십 등 학생 교류 ▲교육을 위한 공동연구 ▲언어교류 및 재학생 문화체험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백석대학교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우리 대학은 2015년 괌대학과의 협약에 이어 올해 괌커뮤니티칼리지와의 협약을 맺고, 괌과의 협

력에 더욱 힘쓰고 있다"며 "양 대학 간의 교류협력으로 재학생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괌 방문에서 가장 '백석 글로벌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백석대학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국적기업 쉘 코퍼레이션이 협조해 공간을 제공하고, 괌커뮤니티칼리지 교수진들이 교육을 제공하는 형식을 구축해

2.3학년의 재학생들이 괌을 방문해 언어교육은 물론 문화체험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천안=채기영기자

한국타이어, 국내 최고 친환경기업 입증

국내 기업 최초 CDP 리더 보드 편입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조현범)가 국내 기업 최초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서플라이어 인게이지먼트 리더 보드' (Supplier Engagement Leader Board)에 편입,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CDP는 기후변화 대응 서플라이어 인게이지먼트에 대해 8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업은 대상으로 CDP 서플라이어 인게이지먼트 리더 보드에 편입시킨다. 올해 서플라이어 인게이지먼트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은 평가 대상 전체 3,300여개 기업 가운데 2%에 해당하는 58개 기업이다.

한국타이어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2017년 '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한데 이어, 지속적인 공급망 탄소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플라이

어 인게이지먼트 리더 보드에 편입됐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자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한국타이어 외에도 애플, 코카콜라, 혼다 모터 등 업계 대표 기업에 이어 글로벌 리더 보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타이어는 CDP를 통해 매년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에 대상으로 기후변화, 물, 삼림자원 등의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를 평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수집된 정보는 매년 보고서로 발간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 활용된다.

김정환기자

“나눔으로 행복한 공주 이루다”

공주시, 이웃돕기성금 13억 4200만원 모금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총 13억 4200만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104%의 성금이 모금됐다.

특히, 올해는 정기 친척과 더불어 기부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집 원아, 이를 없애기 부천시, 지역 기업·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웃돕기 집중모금 기간과 별도로 나눔에 동참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체는 공주시청 사회과 복지연계팀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중 기탁이 가능하며, 착한가정, 착한가게, 착한일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준배 사회과장은 "70여 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이 마무리 되면서 나눔으로 행복한 공주가 됐다"며 "모금에 참여해주신 기업, 단체와 정성을 나눠주신 공주시민, 특히 추운 날씨에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금통을 들고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준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협업·현장으로 "공무원 넓은 업무관행 바꾼다"

정부혁신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혁신'부터 시작... 혁신지침 시행

정부혁신이 공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방식의 넓은 관행을 쇠퇴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하는 방식 혁신지침에는 보고·회의 등 탁상행정이 아니라 협업과 현장소동을 통해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단순하게 내부 보고서 양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재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지침 1차 시행 대상인 중앙부처들은 기관 업무특성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각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또 부처간 소통 부족으로 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기관간 협업하고 목표를 공유해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업무혁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민간 혁신기업·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각 부처에 자문상담을 지원하고 워크스마트포럼, 찾아가는 콘서트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부혁신의 시작"이라며 "100만 공무원의 1분 1초가 국민을 위해 바뀌는 그런 업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문록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주차폭 2.5m

좁은 공간 탓에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짚는 이른바 '문록'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록'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깊이)에서 2.6m(너비)×5.2m(깊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 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재대 교육 관련 임용고사서 합격자 대거 배출

유아교육과 김지원 씨, 대전지역 수석 차지... 비시험대인 영문과도 중등 임용 합격자 배출

배재대학교(총장 김영호)가 올해 중등고사와 공립유치원 교사, 상담교사 임용시험에서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대용 교육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 임용강호' 유아교육과는 대전지역 수석 배출과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명성을 떨치게 됐다.

배재대는 5일 현재 전국시·도 교육청 주관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예년보다 많은 24명이 합격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육과 14명, 가정교육과 6명, 심리상담학과 3명, 영어영문학과 1명이다.

우선 유아교육과는 대전 4명, 세종 3명과 인천·경기·울산지역 7명 등 총 14명이 합격해 6년 연속

두 자릿수 합격자 배출에 성공하며 유아교육 강자임을 재입증했다.

김지원 씨는 대전지역 수석을 차지하며 배재대 유아교육과의 우수한 교육성과를 드러냈다. 이번 성과는 올해 학과 창립 63주년을 맞는 유아교육과가 선배 특강 초청, 멘토링 제도, 1차 시험 합격생을 위한 2차 시험 대비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실이다. 대전·세종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장학관 대부분이 배재대 유아교육과 출신이라는 점도 교육력을 입증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60여 년간 2500여 명의 졸업생 배출과 임용고사에서 100여명을 배출하면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가정교육과도 대전 2명과 인천 2명, 서울·경남 각 1명씩 총 6명의 합격자를 내놓으면서 명실상부 가정교육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가정교육과는 본 학과 출신 교사 멘토-멘티 지도 및 가정교과수석 교사 현장연계지도 등 예비교사의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올해 패기는 학과 교수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도를 바탕으로 운영해 온 현장 연계 교육과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학생들은 교직이수를 하면서 교육실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까지 쟁여 중등학교 가정교사 등 전문인 양성 전문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부여소방서, 설 연휴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국민 불안감 해소하고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명절 보내기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가 오는 19일까지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예방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북한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전통시장 등 판매시설 안전환경 조성 ▲소규모 숙박시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소방특별조사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설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등을

실시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며 "군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긴급대응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태선기자

산림청 "경제림 육성...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사람중심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 개칭 50주년을 맞이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18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해를 맞아 자원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산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커버넌스 구축으로 산림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숲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여가·휴식 공간을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산림청 주요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국제 산림협력 증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경제림을 육성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일자리 창출한다.

경제림 육성산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해 우수한 목재의 생산을 늘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원 기반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산림산업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연결하고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올해 1만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둘째, 다양한 국민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숲을 체험활동, 여가를 위한 문

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여가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을 특성화,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국가 숲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산촌거점권역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촌과 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거점권역을 선정하고, 국가-지자체간 상생 협력체를 구축해 지원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내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숲을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넷째,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특별 산불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헬기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고 과학적 예측기술을 개발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업 방제를 강화한다.

다섯째, 국내외 여건에 맞춰 한반도의 산림 복구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산림협력을 확대해 산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황폐산림 복구의 근간인 대목지원을 종이 채취·저장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황폐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 산림협력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여섯째, 과도한 의존·의례적 회의 등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지구-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림행정 혁신을 통해 국정과제 실천에 앞장선다.

박용관기자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한 청양 만들기

청년·대학생 일자리사업 참여자 간담회 개최



청양군청(군수 이석화)은 5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대학생 일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돼 이석화 군수를 비롯한 청년 인턴 8명 대학생 3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청년소통을 위한 청년문화공간 마련 ▲젊은 층이 살 수 있는 도심지 및 중앙공원 마련 ▲청년일자리 확충으로 청년사업을 확대·시행 등이다.

이에 대해 이석화 군수는 "건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청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 차별 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지역상생 선물세트'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지역상생에 기부는 덤으로... 따뜻한 명절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을경)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지리·종·식 품관여 '설 선물세트 제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 선물세트 행사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를 비롯해 한우·청과·굴비, 건강식품 등 다양한 설 선물세트 상품을 선보이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명절 선물세트 구성한 '대전·세종·충남 지역상생 선물세트'를 제안하는 매

장을 별도로 마련해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맞이한다. 지역상생 선물세트는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명절 선물상품으로 아산 배선물세트(9, 7만원), 광천 별맛김 선물세트(2호, 5만원), 논산 고향기름 선물세트(1호, 5만5000원) 등을 비롯해, 세종 산채인 표고버섯, 공주 팽이버섯·청어 선물세트 등 우리지역의 우수상품으로 만든 선물세트 총 50여종을 선보이고 있다.

송병배기자

공주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 준설토 채굴 '심각'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기관 철저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최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인근 농경지가 일부 골재업자들의 문벌이로 파헤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5일 밝혔다.



다. 그러나 사업 당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강에서 파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으며,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강에서 파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으며,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설토 처리용' 사업이란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규감에서 17만, 4대강 총 140곳에서 진행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대전충남녹색연합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충남 녹색연합 측은 "현재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 40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작업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총 110여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국민 혈세가 완전히 낭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경찰청 "2017 불법폭력 시위건수 역대 최고 기록"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 2017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탄핵 관련 집회 등으로 집회 참가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총 집회 건수는 4만 3,127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참가인원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대규모 탄핵 촛불집회와 보수단체의 주말집회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주변 집회도 최대한 보장' 하는 기조 변화에 따라, 청와대 인근 집회·기자회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특기할만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대규모 집회가 많아도 폭력시위 건수는 '통계관리('84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하였고, 불법행위 사법처리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박봉관기자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태안해양경찰서,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8주간 실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8주간 실시되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한다. 이에 따라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구분하고 특히, 대형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k이상의 기름저장시설과 다중이용 선박, 선착장시설은 전수점검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일반시설은 사업자 자와 관찰관청이 선별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태안=김정현기자



천안동남소방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중

구성면 '자동차매매단지' 화재 진압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5일 00시 39분경 동남구 구성면 소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피해 자동차매매단지는 1층 1개동 17개 점포 중 8개 사무실 330㎡ 소실되고 오토바이, 사무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4천 7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장비 20대와 4명(화)의 소방관 등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광역기동단, 천안서북, 아산에서도 출동해 화재 진압을 지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예산소방서,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5일 오후 2시경 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소방차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발생 시 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 함양을 통해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자 차량정체구간에 대해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상황을 가정해 국민 참여훈련 형식으로 실시됐으며, 훈련과 함께 소방활동터입학보 기부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차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예산=양성업기자



공주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공주경찰서(서장 옥종명)는 지난 2일 신동읍 신동농협에서 마을이장 등 45명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7가지 교통안전수칙을 알리는 전단지 및 야광우산을 배부했다.

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안전시설 허술

한국소비자원,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설치기준 강화 시급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미흡하여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지 않아 시설 안에 갑질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 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족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람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람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기자

청양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웅)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실무교육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수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사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이정훈 예방교육팀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업무정지 등 인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건강대 유아교육·초등특수교육과, 교원임용시험 대거 합격

2018학년도 교원임용시험서 43명 최종합격

건강대학교(총장 정영주) 유아교육과와 초·중등특수교육과가 2018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부산 1명, 인천 3명, 대구 2명, 울산 1명, 대전 7명, 세종 4명, 충남 7명, 충북 5명, 강원 1명, 경기 6명, 경북 1명, 전북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건강대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3개 학과의 한 해 모집정원이 모두 7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졸업생을 포함해 한 해에 43명이나 되는 합격자를 배출한 것은 매우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합격생 중 정은지 씨와 공종원 씨는 대전과 충남에서 각각 수석합격을, 박혜지, 박에스더 씨는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 특수교사로도 복수 합격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소방서,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오는 19일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소방안전대책은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

조사 ▲설 명절 고향집, 주박용 소방시설 선출하기 홍보 ▲화재취약 시설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 활동 강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 환경 개선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특히 설 연휴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특별경계근무

는 ▲소방관서장 중심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강화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예찰활동 강화 ▲119구조·구급대 긴급대응태세 구축 및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보다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산=리영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할의 게재도 드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동구 동안대로 36-36 대정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서산경찰서, 강압적 뒤꽂이 졸업식 예찰

졸업시즌 들어감 따라... 강압적 졸업식 뒤꽂이 예방활동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운산공고를 시작으로 초·중·고가 졸업시즌에 들어감에 따라 강압적 졸업식 뒤꽂이 예방활동을

서산=김정현기자

'사랑의 헌혈운동' 나눔문화 실천

대전충남지방방무청, 대한적십자사 주관 헌혈 운동 동참



대전충남지방방무청은 5일 청사 본관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충남지방방무청 관계자는 "매월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헌혈 운동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헌혈운동은 동절기 혈액 부족에 따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다른 사립을 위해 자신의 혈액을 기증

송병배기자

“직장인, 설 예상 경비 평균 44만원!”

<사람인>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부모님 용돈 및 선물’ 1위 차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1인당 평균 44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장근)이 직장인 743명을 대상으로 ‘설 지출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출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20~30만원 미만’ (19.5%)이 가장 많았고, ‘10~20만원 미만’ (16%), ‘40~50만원 미만’ (14.3%), ‘50~60만원 미만’ (12.7%), ‘30~40만원 미만’ (12.5%), ‘10만원 미

만’ (7.3%), ‘90~100만원 미만’ (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출금액은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혼의 경우, 평균 62만원으로 미혼 35만원보다 1.8배 가량 더 많았다.

올해 설 지출 비용은 지난해 대비 동일하다는 의견이 50.9%로 가장 많았고, ‘늘었다’ (37.8%), ‘줄었다’ (11.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 (66.9%)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음식마련 등 식비’ (8.3%), ‘여가, 문화생활비’ (7.1%), ‘세뱃

돈’ (5.5%), ‘친척 선물’ (3.4%), ‘교통비’ (3.4%), ‘여행비’ (3.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세뱃돈 지출 현황은 어떨까?

세뱃돈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는 71.2%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19만원을 세뱃돈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1인당 세뱃돈 액수는 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세뱃돈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7.9%였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설 연

휴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 (76.5%)고 답했다. 이들 중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귀성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36.3% 나왔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경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져 명절을 앞둔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무리한 지출을 줄이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의미를 둔다면 따뜻하고 뜻 깊은 명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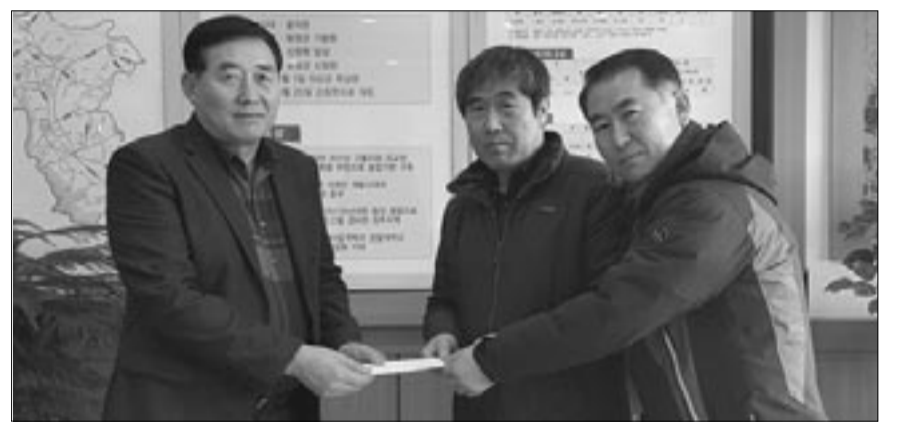
서부평생학습관, 청렴 실천 다짐 결의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은 부당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설 명절 및 인사발령 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연수와 청렴실천 다짐을 결의 했다.

이번 다짐은 소속 직원, 업체관계자, 민원인 간 액수를 불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은 물론, 업무를 대하는 직원의 청렴

의지를 표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갑배 관장은 “공직자의 자세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다”면서 “개인의 실천 의지가 곧, 공무원 모두가 청렴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신창면 복지이장협의회, 면에 장학금 전달

아산시 신창면 복지이장협의회(회장 오세홍)는 지난 2일, 올해 신창면 관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신창면 행복기움추진단(단장 오세홍)에 전달했다. 전달한 장학금은 관내에 소재한 4개 학교 2018년도 졸업생 중 성실하고 모범적인 저소득가동에게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오세홍 협의회장은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복지이장협의회에서 학교당 한 명씩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개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 제 6회의실에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열고 올해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안) 심의 및 학교도서관 운영발전방안, 개선 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공주도서관, 종합자료실 새 단장하고 새 손님맞이 공주도서관(관장 박찬희)이 도서관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자료실 LED 조명 설치, 냉난방기 개선, 오디오북 구입 등 새 단장을 마치고 새 손님맞이가 한창이다.



온양3동, 88자원봉사대서 장학금 전달

아산시 온양3동 소재 88자원봉사대(대장장성준)가 관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4명을 선정해 각각 교육비 30만원씩을 전달했다.

청양교육지원청, 청렴마일리지 제도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이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기관별 청렴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 직원 참여형 청렴실천 운동이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주관 2017년 청렴도 수준 측정 결과에서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이번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

영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40개의 기관(부서) 중 1순위를 차지하여 다시 한번 청렴 교육지원청의 면모를 보였다.

윤주역 교육장은 “이번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시교육청, 제1회 머뭇과 떠남의 인문학축제 개최

충남대 인문학캠프, KTX타고 떠나는 인문학열차등 유기적 연계 프로그램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충남대학교 캠퍼스와 지하의 숲(경기 파주)에서 고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제1회 머뭇과 떠남의 인문학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머뭇과 떠남의 인문학축제는 지난해 9월, 학생들의 인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단과

세종시교육청, 불편한 공문! 이제 그만...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교 공문서 감축계획’에는 ▲공문없는 주(2018. 3. 1.~15.) 운영 ▲공문서 통제관 지정·운영 ▲공문게시 확대 ▲공문서 품질 개선 강화 ▲공문서 부담사태 신고제 운영 등이 담겼다.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로 보내는 외부기관의 홍보성 공문을 줄이기 위해 외부공문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청에서 통관·관리하고, 단순알림, 업무분장 등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을 이용해 공문함으로써 학교에서 접수 절차 없이 공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시기인 3월에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을 위해

2주간 ‘공문없는 주’를 운영하여 수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공문발송을 금지하여(행정실 제외)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율리,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공문서 통제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발송문서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학교현장에 꼭 필요한 문서만 쉽게 발송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학교 공문서에 대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충남도교육청, 전국 4번째로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도내 사립유치원 139곳 원아 1만8450명 지원 대상...충남도, 시·군 50:50 부담

충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39개원 원아 1만8450명에 대한 식품비 61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이뤄지는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사립유치원에 대한 식품비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4곳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139곳, 원아 1만8450명에게 1인당 1일 1식, 연 180일을 기준으로 공립 단설·사립 유치원 1850원, 병설 유치원 1680원의 식품비를 지원한다. 유치원 지원 총 식품비는 93억 원으로 교육청과 도시·군이 50대50으로 부담 지원한다.

공립 단설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는 6867원(식품비 1850원, 인건비 4617원, 친환경식품비 400원)이고, 사립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지원 단가의 인건비를 제외한 2250원이다.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 차이(4617원)는 유아학비 지원금 22만 원, 단설유치원 6만 원을 차등 지급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전하게 된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180일 지원 기준은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일수와 동일하게 적용된 일수로 유치원 180일, 초·중학교 190일의 법정기준 일수에 맞춰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식품비 지원은

“업주와 고객이 함께 웃는

식품 클레임 대응 방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다음달 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식품 클레임 대응기법’ 과정의 교육생 모집한다.

‘식품 클레임 대응기법’ 과정은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식품기업의 대응프로세스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꾸준히 관심 받고 있는 경원당과 사례를 통한 설명이 클레임 처리실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입소문을 타고 매 기수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인기 과정이다.

교육은 식품관련 소비자 클레임의 대응기법과 처리방안, 식품기업의 소비자 분쟁해결 등에 관해 다루며, 교육생들은 유형별 불만고객응대 방법과 상담 프로세스 등을 학습함으로써 클레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고객 상담업무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예산 40억 5천만원 편성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취약학생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의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 교육복지사업 예산 40억 5000만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주요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필요 자원을 지원하며, 대전 지역 45개교(초 20개교, 중 19개교, 고 6개교)에서 운영 하고 있다.

올해 학생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 비사업학교 교육취약학생 지원 내실화, 소통과 협력의 학교지원 확대,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학생 & #8211; 학교-지역사회의 분별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교육취약학생의 꿈·끼 발현을 위해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및 소리Dream 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오는 4월부터 사립학교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희망학교&희망교실’도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특 정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방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6일, 오후 2시부터, 영명 보육원, 사랑의 마을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방문.

에너지 절약캠페인



김석환 홍성군수= 6일 10시 30분 홍주아문에서 열리는 설명회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석.

충남도 공무원교육원 올해 교육과정 '시동'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이 5일 김상기 원장과 제 22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연수생 78명의 총원탑 참여를 시작으로 '2018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돌입했다.

김 원장과 연수생들은 이날 내포 충남보훈공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올해 계획된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해 도민행복 실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여를 시작으로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과 도민 등 4만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총 172개 과정의 '2018년 교육과정' 운영에 돌입했다.

올해 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목표는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 양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도정 핵심가치 교육 △역량개발 기반교육 △공직생애 맞춤형 인재양성 △연수생이 행복한 힐링교육 등이 중점 추진된다.

예산군 50년 역사 청사 떠나 새동지로 이사

11일까지 이사, 12일부터 신청사 본격 근무... 주민 편의 최대한 고려 · 문화공간으로 건축

예산군이 1968년 5월 건축된 50년 역사의 현재 청사(사적로 33)에서의 근무를 2월 11일 마감하고 새동지(군청로 22)로 자리를 옮긴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진행된 이사는 민원업무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3만 5397㎡, 연면적 2만 5805㎡,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구성했으며 2013년 10월 8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12일 준공했다.

현재 청사에 있는 실과 모두 신청사로 이전하고 별관(주교로 64)에 있던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청사 내로 이전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최정석 중부대 교수는 시범 사업 발굴 발제를 통해 내포신도시 스마트 도시 개발 방향을 △시민 주도적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 △가시성·경제성·실효성·시민 참여를 고려한 스마트 도시 정책과 단순·명료한 사업 구성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

눈에 띄는 점은 가장 먼저 민원인을 맞이하는 민원실이다. 3곳으로 나뉘어 있던 민원실이 하나로 모여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편리해졌다.

또한 300여석의 아트홀(대공연장)에서는 교육, 행사, 공연 등 문화행사가 개최할 수 있어 문화예술공연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사 일정으로 1일부터 4일까지는 민원봉사과 지적서고, 총무과 지하서고 기록물을 신청사로 이관하며 5일부터는 각 실과가 이사에 따라 이사를 한다.

1968년 5월 3일 5350㎡ 규모로 건축된 청사는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지역으로 활용돼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사 이사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며 "설계 당시부터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문화공간으로 건축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신청사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 민원봉사과(민원실), 카페, 수유실, 농협, 대피실 ▲2층 아트홀, 예비군지역대, 식당 ▲3층 전산교육장, 감사실, 옥상정원 ▲4층 주민복지실, 재무과, 대회의실 ▲5층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총무과, 브리핑룸 ▲6층 경제과, 환경과, 교육체육과, 건설교통과 ▲7층 산림축산과, 농정 유통과, 문화관광과, 도시재생과 ▲8층 안전관리과, 수도과(상하수도사업소)가 위치하게 된다.

예산=양영업기자

다.



베트남 호치민 빈마트 시식행사

예산항토사과 소비자입맛조사사업 예산항토사과가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빈마트(VINMART)에서 개최된 홍보 및 시식행사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을 시로잡았다.

예산항토사과가 지난 2일 베트남 호치민 빈마트(VINMART)에서 개최된 홍보 및 시식행사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을 시로잡았다.

예산=양영업기자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활용 청년창업 성공사례 만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는 오는 23일까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세종형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형로컬푸드 청년창업 C-LAB' 운영사업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런 사업의 대상시설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평가를 현장 맞춤형 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산업국장은 "청년창업 도전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을 성공사례로 만들고, 창업벤처 전담부서를 설치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청년창업 C-LAB 운영사업의 자세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3시, 센터 1층 열린공간에서 세종시 거주 청년과 대학생 등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진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측정 · 관리사업 실시

노인 · 장애인들 건강관리 대책 사회적 문제로 대두

충남도가 3월부터 연말까지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사업의 대상시설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평가를 현장 맞춤형 관리매뉴얼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시설은 측정의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군으로, 도의 실내공기질 측정 · 관리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세종시, 각종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 사항 최소화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시 분청을 비롯, 사업소와 각 읍 · 동 · 공사 · 공단, 출자 · 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특별점검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하여 흐트러지지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총부유세균, 이산화탄소(CO2), 라돈(Rn) 등이다.

도 관계자는 "편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대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 관리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 장진복 위원장은 "명절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읍 · 구 · 군청, 읍 · 구청, 읍 · 구청 등 주요 비위와 직무 태만 등의 소극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청렴제증명명단 신고장'과 시민들이 공직비리 신고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내포 스마트 시티 구축' 속도 낸다

시범 사업 발굴 토론회... 개발 방향 · 12개 사업 등 제시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공공기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똑똑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 발굴 ·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정석 중부대 교수는 시범 사업 발굴 발제를 통해 내포신도시 스마트 도시 개발 방향을 △시민 주도적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 △가시성·경제성·실효성·시민 참여를 고려한 스마트 도시 정책과 단순·명료한 사업 구성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

적 기반 시설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정석원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국내 · 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는 기본 구상을 조속히 마련해 내포신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 · 제시된 시범 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의 통해 검토 · 반영하고, 내포 스마트 도시 서비스 항목 및 통합 관제센터 등 구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제 홍성군의 다문화가정은 650가구로, 군은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입산부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해 자국인 출산가정에 파견해 오고 있다.

한편 도는 현재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 CCTV 기반 관제를 통한 도시 관리 위주 공공지역 안전 감시, 돌방 상황감지, 차량추적 관리, 주정차 위반 단속, 교통정보 제공, 유·시민 시설물 관리 등 6개 서비스를 구축했다.

김정한 기자

사업 진행은 보건소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중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 기관(미소맘, 해피케어)에 위탁교육을 맡기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홍성=김정한기자

세종시 근로여건만족도 전국 1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근로여건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지난 1월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 e-지방지표에 게시한 2017년 근로여건 만족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근로여건 만족도 비율은(42.0%)로 전국(27.7%), 상위권 시 · 도 강원(34.1%), 제주(32.6%), 대전(31.5%)에 비해 만족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홍성군보건소는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다문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사업'을 위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건강관리 제공기관인 미소맘, 해피케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총 3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현제 홍성군의 다문화가정은 650가구로, 군은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입산부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해 자국인 출산가정에 파견해 오고 있다.

홍성군 보건소, 총 3개 기관과 MOU 체결

주요 교육 내용은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서비스의 기초,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신생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등 산후조리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보건 복지부 인증 자격을 부여받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다.

홍성=김정한기자

올해 연두순방 성공적 마무리

당진시, 각계각층 시민들의 공감증 해소·다양한 의견 청취

당진시가 5일 당진3동을 끝으로 지난달 22일 합덕읍부터 시작해 관내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2018년 연두순방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순방은 시정의 장기 비전과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과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 방문을 통해 시는 지난해 수립한 2035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정운영 방안과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공감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평소 시정참여가 쉽지 않았던 학생에서



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홍장 시장은 주민

들의 건의사항과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추가 설명이나 자세한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추가 설명을 통해 민원의 현장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당진시는 이번 연두순방에서 접수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분류해 관리카드화 하는 한편 관련 부서 검토와 예산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장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최대한 풀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 조성 앞장

태안군, 종합상황실 운영·연휴기간중 151명 비상근무 투입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안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재해 안전대책 추진 등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재난·재해 안전대책 ▲교통소통 ▲물가관리 ▲환경관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생활민원 처리 및 방역·비상진료 ▲공직자간 화합 등 종합대책 중점추진 대상 7개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별 집중관리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귀성객 수용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를 운영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한 설 명절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군은 상황우지와 주요동향 파악 및 사건·사고 종합관리를 위해 설 연휴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군 10개반 87명과 읍·면 2개반 64명 등 총 151명의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또한,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명절 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며, 연휴기간 중 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전염병 유입을 막고 연휴기간 중 귀성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일부터 18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및 각급 기관·단체와 함께 설 맞이 마을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군은 공직자 60명과 취약가정 60가구를 1대 1로 매칭해 각 공직자가 해당 가정을 찾아 위문하는 '1공무원 1가정 결연 위문활동'을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점검과 응급의료 비상진료 체계 구축 등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군민과 귀성객들이 다함께 즐겁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관리에 역점을 뒀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태안군 정월 초 황도에서 '새해 만복' 기원 하세요

17일부터 이틀간 인면읍 황도리서 '황도 봉기뿔어제' 열려

새해 만복을 기원하는 태안군의 대표 풍어제인 '황도 봉기뿔어제'가 설 다음날인 오는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인면읍 황도리 당집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된다.

황도 봉기뿔어제는 년 음력 정월 초이틀과 초사흘에 걸쳐 행해지는 마을 의식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의 각종 사고를 막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실시돼 왔으며 지난 1991년 충남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바 있다.

황도봉기뿔어제 보존회(회장 오용집)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풍어제와 함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17일에는 소를 잡아제물로 바치는 '피고사'와 집집마다 들며 풍어 및 마을안양 등을 기원하는 '세경굿', 봉기(오색기) 들고 달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토장비결 보기와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18일에는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대동굿'에 이어, 새해 처음으로 출항하는 어선의 만복을 기원하는 '어선 지숙' 및 마무리 굿이 펼쳐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황도 봉기뿔어제는 매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 및 사진작가가 찾는 충남의 대표 풍어제"라며 "많은 분들이 정월 초 황도를 찾아 올 한해의 행복을 기원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2월 정기회의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병국)은 지난 2일,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월 정기회의를 가졌다.

신임위원(김미영, 김영철, 문정하, 장영자, 지승우)을 위촉하고 추진단의 활성화 방안 및 연계계획에 대한 토의와 함께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100가정에 150만원 상당의 떡국떡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사례회의를 통해 복지반장과 행복키움추진단원의 발굴로 제보된 복지사각지대에 정기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병국 행복키움추진단장은 "올해에도 관내 취약·위기가구에 관심을 갖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복키움추진단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2018년도 장학생 선발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이석화)가 오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2018년도 장학생을 신청 받는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학금 총 규모는 2억3200만원으로 명문대, 충남

도립대, 내고장학교보내기, 성적우수 및 예체능 분야 등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월 2일) 현재 1년 이상 부모 또는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분야 별 자세한 자격조건은 장학회 홈페이지(www.clove.kr) 및 청양군청 홈페이지(www.cheongyun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서류 제출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장학회 사무국(청양군

행정지원과)으로 하면 된다.

한편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는 청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으로 미래지원의 핵심인 인적자원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6월 설립돼 2017년까지 1600여명에게 16억여원의 장학금 및 장학사업비를 지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신창읍내자율방범대 연탄 나눔 봉사 실시



아산시 신창면 읍내자율방범대 대장 양건승가 지난 4일,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세홍)의 요청으로 신창면 오목리 소재 장애인 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연탄 나눔 봉사는 송악면의 어느 독지가가 기부한 연탄과 읍내 자율방범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연탄을 자율방범대원 및 대원 자녀들이 함께 연탄을 싣고와 연탄이 부족하다는 장애인 가정에 전달하게 됐다.

양건승 대장은 "찬바람 부는 추운 겨울 날 주말에 연탄봉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대원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을 함께 나누는 읍내자율방범대가 되어 맞춤형 복지를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홍 단장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훌륭한 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의 단체와 손잡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창읍내자율방범대는 수시로 관내 집수리봉사가 필요할 때 마다 집수리 및 전기공사, 환경정화 등 관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사랑의 재능기부 및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설 연휴 대비 물가안정 총력

당진시, 성수품 지도점검·가격표시제 홍보 추진

당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합동 지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장 지역 경제과와 민원위생과, 축산과, 농수산유통과, 문화관광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가격 동향조사와 가격표시 불이행 등을 중점 점검 및 홍보 중이다.

당진시에서 정한 가격 안정관리 중점 성수품으로는 사과와 배, 마늘, 배추 등 농산물 8개 품목과 조기, 명태 등 수산물 4개 품목,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4개 품목, 참기름, 식용유류, 밀가루 등 가공식품 4개 품목 등 총 20개 품목이다.

시는 해당 성수품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 회원과 협업을 통해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취급업소의 가격 안정 자율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사단법인 소비자교육 중앙회 당진시지부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당진 어시장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해 알뜰 차례상 차리기와 가격표시제 이행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였다.

이밖에도 시는 이날 캠페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과 특례보증 제도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홍보를 병행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동정

중앙도서관 개관식

북기왕 아산시장은 6일 오후 2시 용화동 중앙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감시원 발대식

김홍장 당진시장은 6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발대식에 참석.

중앙도서관 개관식

오안영 아산시의회의장은 6일 오후 2시 용화동 중앙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관광개발대상지 벤치마킹

이석화 청양군수는 6일 오전 8시 30분부터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관광개발대상지 벤치마킹을 실시.

청양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적측량의 정확도 제고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9213점(지적삼각점 10점, 지적삼각보조점 201점, 지적도근점 9002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와의 협동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하고, 재설치 또는 폐기해 지적측량시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담당부서 및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여야 함을 통지하고 추가로 신설되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성과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공정·정확하고 통일된 측량성과를 제공해 지적측량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치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청양군 대치면(면장 김종용)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 청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청양을 방문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

또한 도로변 및 주택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율적 철거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발생 불법 광고물은 즉시 단속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남양면(면장 이원도) 최근 특정사업주들이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우후죽순으로 게시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였다.

이원 남양면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계군문화엑스포 상징물 공모

조직위, 오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 · 4개 부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0년 9~10월중 계룡시에서 개최되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전국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상징물을 공모한다.

조직위는 세계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엑스포 주제인 '평화로 하나되는 world military'를 잘 표현하고 시각적으로 상징성이 담긴 작품을 공모 받는다.

또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룡시의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공모 분야는 4개 부문 8점(심벌마크, 시그니처, 캐릭터, 포스터) 각각 당선작 1, 2작 1점으로 접수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공모자격에 제한은 없다. 단, 응모건수는 부문별 1점만 제출 가능하다.

접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은 다음달 9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입상작 선정은 오는 4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심벌마크, 시그니처, 캐릭터, 포스터 4개 부문에 총 1,4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조직위는 앞으로 공개공모와 심사를 거쳐 상징물을 선정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각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활성화와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응모될 수 있도록 전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모 공고는 충청남도, 계룡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042-840-3914)로 문의하면 된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공모 선정

서천군, 가무악 '바람의 밭' 공연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문화예술포럼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공감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으로 문화회관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 해소를 통해 문화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바람의 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산모시짜기와 충남무형문화재 제21호 서천부채장의 공작부채를 모티브로 한 공연으로 오는 4월 '전통무용단 훈'이 출연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실내악과 사물장단의 가락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한국무용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관객들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관객친화형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을 제작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서천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계룡시, 다음달 7일까지...2400여개 사업체 대상 조사

계룡시(시장 최홍욱)는 6일부터 3월 7일까지 관내 2,4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계룡 지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국가지정 통계이며,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사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되는 통계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며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9월 잠정 결과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자치행정과(042-840-2123)로 문의하면 된다.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논산시, 물가특별대책기간 운영 등... 건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 주력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생활안정과 건전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 성수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및 물가동향 파악과 대책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과정을 총괄로 1개반 6명으로 시·소비자단체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5일부터 18일까지 물가모니터,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제수용품 등 성수품 20개 품목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해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공급 확대 등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홍보물 배부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10개 품목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 과다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인하, 환원 권고 등 특별관리를 통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담합, 과다 인상행위 사전 방지에 나선다.

8일에는 논산화지중앙시장 일

원에서 상인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일일차려상 차리기 권장,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겸소한 설 명절 보내기 홍보 캠페인을 펼쳐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품 및 물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천안시 내달 7일까지 5만여 사업체 통계조사

사업체 분포 등 분석해 정책수립·학술연구·기초자료로 활용

천안시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역내 1인 이상 사업체 5만2820곳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고용구조 등을 분석해 정부 정책을 수립하거나 평가하고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을 통해 이뤄진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13개 공통항목과 1개의 충청남도 특성항목(상용근로자 취업 연간 급여수준)을 조사한다.

정책 활용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하고 조사자가 없는 자영업자

는 명부 확인으로 대체해 조사원의 업무량 경감과 예산절감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사업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규조사원 18명을 포함한 104명에 대한 통계 조사요원을 선정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예산문화예술포럼에서 이번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통계청 통계 전문기를 보강해 정확한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업체 통계조사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부여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공 실무회의

백제문화권 5개 시군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 해결 위해 협력 다져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한반도의 대동맥으로서 국가경제발전과 지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철도이었다.

세종, 공주, 보령, 부여, 청양 등 5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충청산업문화철도 실무위원회가 지난 5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발주(안) 등을 협의했다.

백제문화권 5개 시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충청산업문화철도(89.2km)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확정 고시된 후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착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충북선-태백선-영동선과 연결되어 보령에서 동해까지 동서횡단철도망이 구축된다. 가장 짧은 거리와 비용으로 동서횡단 철도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백제문화권이 철도소외지역에서 해소되면서 동서철도 완성, 중부권 개발촉진, 지역경제 활력, 관광활성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5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조기 착공을 염원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종축으로 건설해 온 철도망을 동서-횡축으로 연결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며, 더 나아가 남북철도와 연결하고 8만1천km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계하여 국제수송 네트워크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효용성이 큰 철도이기 때문에 조기착공이 중요하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가 충실하게 진행되어 철도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강소농경영체 농식품가공 전문가 양성

논산시, 1인 1자격증 갖기 프로젝트 1탄 '출발'



논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익희)는 지난달 31일 31명의 강소농경영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기술사' 자격증 과정을 개강하고, 농식품가공 전문가 양성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이번 교육은 강소농경영체가 갖고 있는 유망형 자신의 내실화 기반조성과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 강소농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5월 30일까지 22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야간에 식품의 성분과 가공특성, 식품위생, 전처리, 포장 등 식품 가공 등 이론 수업과 실습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게 된다.

이번 식품가공기술사 자격증 과정교육에 참여한 제해근 강소농(부적 회주농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을 1인 1자격증 갖기의 해로 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화훼장식기능사(필기) 3명이 합격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와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한 농식품가공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천안시 동남구청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지난 1일부터 6월 말까지 5개월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 나서

천안시 동남구청장 김겨래는 지난 1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다.

동남구의 지난해 회계 지방세(인·물)체납액은 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체납액의 41%인 130억 원을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골프장 2곳이 차지하고 있어 골프장 체납액 징수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이월체납액의 35%인 111억 원을 연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55억 원을 징수하고자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시 ▲체납액 징수(정리) 목표제 운영 ▲세무서 팀별 책임징수 독려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징수 불능분 결산처분 및 사후관리 ▲주요 고액·고질 체납자 집중관리 ▲현년도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납기 내 납부홍보 ▲납세도움콜센

터를 통한 소액체납자 납부독려 등으로, 모든 법적수단을 이용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월 중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26만 7,333건(5만 8,999명)에 대해 전수 발송해 체납액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겨래 구청장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납 등을 도움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통정

찾아기는 소통행정



구본영 천안시장=6일 '2018년 읍면동 현장중심 찾아가는 소통행정'의 일정으로 오전 10시 성거읍, 오후 2시 직산읍을 잇따라 방문

연두순방



최홍욱 계룡시장=6일, 오후 2시 금암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연두순방 행사 참석

주요업무보고회



노박래 서천군수=6일 오전 10시 군청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2018년도 회회 주요업무보고회에 참석

연두순방



이용우 부여군수=6일 오전 9시 30분 외산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2018 연두순방'에 참석



부여군 산불 예방 비상체제 돌입

발대식 · 17개소 산불방지대책본부가동

부여군은 산불조심기간(1.25 ~ 5.15)을 맞이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과 읍·면 등 17개소를 가동하는 한편 군 및 읍면 산불진화대의 발대식을 지난 5일 개최한 후 상황실 근무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개모집으로 합격된 산불진화대원 123명(군산불진화대 27명, 읍·면산불진화대 96명)에게 소속감과 자긍심 부여를 위해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 진화요령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발대식 및 안전사고 교육을 마치고 산불진화대와 산불조사 공무원 등 100여명은 부소산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산불진화대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에는 철저한 대응 및 조동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부여=이정복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동정

운동장 현대화사업 개장식



김동일 보령시장 = 6일 오전 9시 30분 한내여자중학교에서 열리는 운동장 현대화사업 개장식, 오전 10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보령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사업 중간보고회, 오후 2시 시청실에서 민원상담의 날 운영.

농협 새해맞이 희망떡 전달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6일 오전 10시 시청실에서 열리는 농협 새해맞이 희망떡 전달식에 참석, 오전 10시 20분 상황실에서 서산시체육회 이사 위촉 및 카누연맹 회장 인준장을 수여, 오후 2시 한화토탈에서 열리는 화학 혁신성장전략 발표에 참석, 오후 5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원업무 대행업체 대표자 협동간담회에 참석.

군민과의 현장대화



박동철 금산군수는 6일 오후 2시 부리면사무소에서 열리는 군민과의 현장 대화에 참석.

예비학부모 및 교원 연수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6일 오후 3시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자유학년제 중학교 예비학부모 및 교원 연수에 참석.

운동장 현대화 사업 개장식



조민형 보령교육장은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내여자중학교에서 열리는 한내여자중학교 운동장 현대화 사업 개장식에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공주시 시청정지역 철통방어 총력

가금농가 방역실태 현지점검 · 촘촘한 방역 시스템 구축에 안간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가금농가 방역실태 현지점검 및 방역 시스템 구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가에 방역약품을 지급하고 방역차량을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지난달 10일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 이어 충남 당진 종계에서도 의심축이 발생 하는 등 현재 전북, 전남, 경기, 충남 내 11여개 지자체가 AI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500수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 827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농장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화성, 평택 등 충남 인근지역 까지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축협이 공동방제 기를 동원해 모든 가금농가에 조류 기피제를 살포하는 한편, 전 농가에 대해 홍보를 실시, 축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재 AI재난안전대책 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생석회를 공급하고 우성면 목천리 23번 국도에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해 축사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류승용 축산과장은 "철새가 북상하는 3월까지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모임,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농장 출입 시 신발 갈아 신고만 준수해도 각종 질병병염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며, "시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소독여부 및 가족이동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으로 시청정지역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설 선물 만세보령 농특산품 가성비 · 가심비 최고

만세보령쌀 · 조미김 · 청정해산물 등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판매되고 있다. 구매는 포탈사이트에서 '보령 김' 등으로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다. 청정해역인 보령 앞바다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인 해삼·전복 등 제철 수산물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건수산물세트도 인기에 팔리고 있다. 건수산물세트는 멸치와 홍합, 황태 등 건조된 수산물로 이뤄져 있으며, 선물 종류에 따라 선물 종류에 따라 3만원에서 4만원까지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피부노화 방지와 이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보령머드화장품도 오는 18일까지 품목별 최대 40%까지 할인판매 된다. 3만원 이상 구입할 경우 택배비가 면제된다.(보령시 관광과 머드사업팀, ☎041-930-3526-7) 전국 양송이버섯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보령의 친환경버섯은 공기 맑고 물 좋기로 소문난 미산면에서 100m 암반수를 이용해 재배하고 있다. 인기상품으로는 보령친환경 알뜰버섯세트(2만8000원)와 알뜰건강양송이세트(2만9000원)가 있으며, 3-5만 원 대의 생표 고버섯 선물세트도 절찬리 판매중이다. (보령친환경버섯영농조합법인, http://forestmall.com, ☎041-932-4494) 보령=김태성기자

사곡유류 · 우성 보흥지구 공주시 지적재조사 박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토지경제분쟁 및 측량비용 절감을 위해 사곡면 유류1지구 240필지와 우성면 보흥1지구 2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을 상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적 추세로 표포를 활용한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재조사지구 264필지 29만 5천여㎡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측량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경계확정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조정관 선정, 지적공부 정리 등을 거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계설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의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확정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정보로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읍면군민과의 현장대화 실시

박동철 군수, 주민 생활불편사항 · 애로사항 청취

박동철 금산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군민과의 현장대화에 나섰다. 금산읍·금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는 박동철 군수를 비롯해 20여명의 군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읍·면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 군정운영과 현안사업을 논의한다.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구상하는 한편, 주민 생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가질 계획이다. 박동철 군수는 "행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소화하면서도 내실 있게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집중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민선 6기의 현안 과제들을 잘 마무리해 군정의 안정화를 지속시켜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총력'

서산시,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등

서산시가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에 적극 나선다. 시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보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 목책기, 철선울타리, 조류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난해 예산에 대비해 100% 가량 증액하고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 농민들의 농업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한 보상제도도 시행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 보호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서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서산시는 대형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이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안전점검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운송수단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빙기 점검시설 등 947개 시설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통해 시민들도 안전신고·제안에 참여시켜 주변의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 계획이다. 서산=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houses and text describing their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오늘의 하이라이트

▲ 역류 (MBC 오전 7시50분)



인영(신다은)의 책상에 결재를 마친 서류를 놓으려던 준희(서도영)는...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간첩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홍주(윤다영)로 드러난 일은...

케이블 명화

▲ 핵소고지 (OCN 오후 3시50분)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후 최고의 전쟁 영화

영화 <핵소 고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치열했던 핵소 고지에서 무기 없이 75명의 생명을 구한...

비폭력주의자인 도스(앤드류 가블드)는 전쟁으로부터 조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결국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도스에게...

총을 들 수 없다는 이유로 필수 훈련 중 하나인 총기 훈련마저 거부한 도스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

고, 달순(홍아름)은 태성(임호)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강 피혁을 무너뜨리는데 이용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데...

▲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20분)



행주는 화영에게 더 이상 예언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까 두려운 화영은...

▲ 애프터어스 (채널CGV 오후 10시30분)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윌 스미스, 아들 제이든 스미스와 콤백!

세계가 주목한 동반 캐스팅! 완벽한 연기 시너지로 전 세대 사로잡는다!!

영화 <애프터 어스>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떠나 다른 행성에서 살아간다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행성에서 살아간다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눈길을 끈다. <애프터 어스>는 3072년, 인류에게 버림받아 황폐해진 지구에...

불시착한 아버지와 아들이 공적으로 진화한 생명체들에 맞서 생존이 걸린 극한의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이다.

3072년, 낯선 행성에 불시착했다! 이곳은... 지구다!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전자 사이퍼 레이저 윌 스미스와 아들 카타이 레이저 제이든 스미스는 이곳이 1,000년 전 대재앙 이후 모든 인류가 떠나고 황폐해진 '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버려진 지구를 정복한 생명체들은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진화해 그들을 공격하고, 우주선에서 탈출한 외계 생명체 역시 무차별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

상상을 지배할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가 온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산문화재단, 은행나무길 '소소한 콘서트' 참가자 공개 모집



아산문화재단은 '아산의 대표거리 은행나무길에서 진행되는 '소소한 콘서트 시즌6에 참가할 출연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티즌, 2018시즌 슬로건 '자주자주' 디자인 리뉴얼



대전시티즌이 클래식 승격의 의지를 담은 2018시즌 슬로건을 공개했다.

대전은 지난 해, 2018시즌 슬로건 공개 공모를 통해 우수작 3작을 선정했다. 기존 슬로건을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을 반영해, 총 4개 후보로 대전시티즌 공식페이스북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주자주'는 구단의 상징색인 '자주색'을 모토로 제작되었다. '자주자주' 찌릿한 승리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리자'는 목표와 대전월드컵경기장 나아가 대전이 자주색 유니폼을 입은 대전시민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염원 등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전은 '자주자주'가 세 시즌 연속 슬로건으로 확정됨에 따라, 슬로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디자인에 응용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을 실시했다.

시민과 관광객을 만나게 된다. 은행나무길 '소소한 콘서트'는 일상에서 즐기는 '작지만 소중한' 콘서트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은행나무길을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아산문화재단이 2015년 은행나무길에 입주하여 진행해 왔다.

기까지 많은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어 감사하다. "며, "올해에도 다양한 장르의 참가팀이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소한 콘서트 시즌6에 출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은 아산문화재단(afac.or.kr)/공지사항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3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18 Baseball League (2018년 엄외장기 리그 모집) with details on registration,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대전 동구, 설 명절 공직사회 청렴문화캠페인 전개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동구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사담당 직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5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출근길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문화캠페인을 펼쳤다.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원직업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발간·배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철호)은 교육공무원직업인사노무관리매뉴얼을 발간하고, 2월5일 오후 2시, 평생학습관에서 대전 지역 전체 학교 행정실장 및 교육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K-water, 설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K-water 금강북부권수도건설(단장 나봉길)은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배방읍 내 취약계층인 보육원 어린이 시설에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공주시 이영행 교통안전전망, 한겨울 새벽부터 시민 안전 위해 봉사 공주시 교통과 이영행 교통안전전망이 동장군이 기습을 부리는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새벽부터 시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수신호를 해 시민들로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



기톨릭대 대전성모병원대전보건대로부터 한혈증 200장 기증받다 기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응남 신부, 왼쪽)은 5일 오후 2시 병원을 방문한 대전보건대학교 서중석 총장(오른쪽)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1만명으로 모든 한혈증 200장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한혈증은 소아암 및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밭대, 제12회 PSV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템 수상팀 해외연수 한밭대(총장 송하영)는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제12회 PSV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템 수상팀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대 LINC+사업단, 다양한 형태의 재능봉사와 사회공헌 활동 목적

‘혜화프로보노단 발대식’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LINC+사업단(단장 김선태 교수)이 5일 대학 융합과학관에서 ‘혜화프로보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전대 LINC+사업단 지역문화협력센터가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다양한 형태의 재능봉사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40여 명의 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선태 LINC+사업단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으며, 이후 ‘지역문화협력센터 소개 및 혜화프로



보노단의 운영계획’이라는 주제로 김지혁 지역문화협력센터장의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발대식을 통해 이들은 향후 지원금 빈곤과 질병 및 재난과 자활

등을 돕기 위한 국제교류활동을 비롯해 학과별 재능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재능봉사 활동과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출판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

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해 ‘한밤바이오 프로보노’와 ‘ICT융합 프로보노’, ‘문화협력비즈니스 프로보노’ 및 ‘교육지원 프로보노’ 등 계열별 프로보노 활동도 운영된다.

LINC+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혜화프로보노단 발대식에는 ‘봉사’라는 활동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따사모봉사단, 온양2동 찾아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물품 전달

아산시 따사모봉사단(단장 유영금)은 지난 2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 및 나눔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온양2동(동장 전유태)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첫술 800개를 기탁했다.

따사모봉사단은 밥이 하늘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 이들과 따뜻한 밤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봉사단이 기탁한 첫술은 찾아가는 방문상담 시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고르게 나누어드리며 안부 살피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유영금 단장은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원물품을 기탁하게 됐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향주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개교 제20주년 기념행사’ 거행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이배섭)는 5일 오전 10시 본관 시청각실에서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폴리텍대학 개교 제2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이배섭 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석형 이사장의 기념사를 대독 및 학장 기념사를 통해 2017년 특성화대학 및 바이오캠퍼스의 사업 성과를 치하하

고 교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대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 교직원 포상을 함께 진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배섭 학장 기념사를 통해 “2018학년도에는 전교직원이 더욱 합심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친환경 쌀로 만든 떡국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 청양금계귀리쌀영농조합법인(대표 임승운)은 지난 2일 경로당에 전해달라며 떡국용 떡 24포를 화성면행정복지센터(면장 양근석)에 기탁했다.

공주신협, 제45차 정기총회개최

제18대 김경환 이사장의 취임식



공주신협은 지난 3일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18대 공주신협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경환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정진석 국회의원, 윤석우 충남도회의장, 윤홍중 공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조합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새로 취임하는 김경환 이사장은 “공주신협 이사장으로써 신철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주신협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주신협은 나날이 성장발전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임직원이 협심 단결하여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주신협과 공주발전을 위해 조합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으로 개회사 국민연예 내빈 및 임원소개 기념사 폐회사로 진행됐으며 2부는 제45차 정기총회 본회의로 진행됐다.

공주=정성범기자

국민연금 대전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 홍보 캠페인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진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김진진 대전본부장과 직원들은 관내 전통시장인 대전 서구 도마리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주며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그리고 ‘두

루누리 지원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김진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가두 캠페인을 계기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동정 ●●●

HRC 준공식



대전대 이종서 총장 = 6일 오후 2시 대학

HRC(Hyehwa Residential College) 블루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리는 ‘HRC 준공식’을 주관.

한남대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센터 김성대 교육생 투자 유치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교육생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완, 개발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창업 교육 성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센터에서 교육받은 김성대 교육생(28)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터 기업 로우파트너스(유)가 운영하는 “SIX PACK Program”에 참가하여 3,000만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김성대 교육생은 스포츠와 헬스케어 산업을 기반으로 무선근전도 측정기를 연구하여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경과 근육의 상태를 파악하는 측정기를 개발했다. 한남대학교 생활체육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 씨는 연구소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로 특히 측정기의 휴대성과 사용의 편리성으로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정복기자

국립공주박물관, 새해

설날 맞이 문화행사 풍성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박물관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보낼 수 있도록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등 전통 민속놀이와 함께 떡메치기, 풍물공연을 준비했다.

실내공연으로는 유리로 만든 그림판위에 모래를 이용해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를 연출한 ‘모래마녀 샌드위치’(10일 14시, 16시)가 고양이의 모험, 지구가 아파요, 꿈과 희망의 날개, 미운오리 이야기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샌드아트 선생님이 직접 그리는 라이브 공연은 아이들에게 더 큰 재미와 웃음,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정성범기자

기고

평화의 성화, 평창에서 타오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9일 평창 하늘에 성화가 떠오른다. 올림픽 개최지의 국격과 품위에 맞게 세계인의 축제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민족적 경사다. 두 차례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우여곡절과 시련은 많았다. 88서울올림픽은 '바텐바텐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편의 드라마였다.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이라는 선진국을 제치고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발도상국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사마란치 위원장의 '세울' 발표 장면은 지금보아도 가슴이 뭉클하다.

88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서도 의미가 깊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냉전의 여파로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다. 서울 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가 함께 참가한 최대 규모의 올림픽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치이념을 떠나 동서 화합과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이 그것도 분단된 나라에서 개최가 되었으니 그 감동은 배가 되었다.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과정에서 두 차례의 고배를 마셨다. 무엇

보다 막상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극에 달했다. 지난해 우리는 북한의 최대 규모 핵 실험과 몰아치기식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극한의 긴장을 경험했다.

올림픽 개최의 안전성 문제도 마에 올랐다. 급기야 몇몇 나라들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올림픽의 화합·평화의 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냉전의 잔재가 남아있는 평창을 탈냉전의 평화로 각인시키는 것이 눈앞의 과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의 경사이자 세계인의 대축제가 평화롭게 개최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쉽게 읽지 못했다. '평창평화올림픽'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적 분단 상황을 우리가 우선 평화와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북이 화합하는 문제가 말로 세계인들이 평창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순박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창올림픽을 민족경사·평화축전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에 공감함으로써 공동 입장과 공동응원에 합의했다. 남북과 선수, 관중이 함께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는 한반도의 첫 번째 아리랑의 단기로 민족의 하나됨을 전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일부에서는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마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것처럼 주장한다. 북한이 참여를 결정하게 된 속사정과 의도를 다 알 수는 없다.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민간단체·체육계·국제올림픽위원회 등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와일드카드로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지원했다.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에 동의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1월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휴전협정을 채택했다.

모든 노력들이 모아져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결정된 것이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바탕에서 개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분명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다.

북한 선수단을 포함하여 전 세계인을 초청하여 평화롭고 영광되게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다. 북한이 협의 과정에서 방남계획, 금강산 문화공연 등을 일방적으로 중단·취소하고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것처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성공하게 추진되어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 또한 아쉬운 점이다. 과거의 좋은 점은 계승하고 미비한 점은 개선해 나가므로써 역사는 발전한다.

선전의 부족과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의 보장은 정부의 몫이다.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까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니 올림픽 개최이후 한 층 더 높아질 우리의 국격을 기대한다.

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반 기대반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만들자는 공감대는 형성된 듯하다. 공감대가 일시적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혜가 요구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변수가 많은 것은 해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운신 쪽은 매우 좁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북핵불용을 재확인하면서 최대의 압박을 역설하였다. '강대국' 국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체제 구축에 토대한 한반도 통일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남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복귀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을 이끌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간 성실한 합의 이행을 통해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동시에 북미간 대화와 북핵문제의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특사 파견 및 장관급 회의체 복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도발로 국제제재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앞서나가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문제의 유관국들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가 중요하다.

북한을 대화의 탁에 앉히기 위해 주변국과 함께하는 공동의 외교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역사사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가진다면 평창 올림픽의 평화 성화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타오를 것을 확실한 다.

나라·인종·종교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평화이다. 평화만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비핵화·평화체제·통일을 이끌 수 있다.

사설

혁신 팔짱 낀 채 간섭만 하는 금융당국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금융정책의 중심이 산업진흥에서 감독 강화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진단한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기존 금융산업의 틀을 깨겠다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은 답보상태다. 일부 여당 의원이 은산론리 완화에 반대하자 금융당국은 이들의 논치를 보는데 급급하다.

는 소홀한 채 시장에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산금리 규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민간기업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노골적으로 끼어들어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급기야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금융권과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판이다. 당국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이전투구의 당사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당국이 업계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트집만 잡는데 금융 경쟁력이 나아질 리 있겠는가.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동남아 진출에 속도를 내려는 금융권이 당국과 적이 돼 버려 난감한 처지라니 기가 막힌다. 이런 비정상성이 계속되는 한 금융산업 경쟁력이 구간다보다 못하다는 냉소는 사라지지 힘들다. 금융당국은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도 금융에서 글로벌 베스트 기업이 못 나올 것"이라는 전 금융투자협회장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데도 당국은 혁신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장밋빛 지표 뒤에 숨은 일자리 절벽

수출이 지난해 거저효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올들어 1월 수출액은 492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폭이 크다.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 15개월 연속 오르세다. 무역수지는 37억2000만 달러 흑자다. 이걸 72개월 연속이다. 지난해 3.1%의 성장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류가 늘면서 141% 증가했다. 기동률이 낮아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자동차 진행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다. 인력 수요는 오히려 줄어든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지표 뒤에는 일자리 절벽이 여전하다. 일부에 편중된 호(好)성적이기 때문이다. 1월 수출 호조의 주역은 반도체다. 96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다. 매출과 수익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업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식어간다. 당치가 큰 업종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업종 전반의 체감경기 파악에는 더 유용한 지표로 생산확산 지수가 있다. 50이 넘어면 전월보다 생산이 증가한 업종이 많아 체감경기가 비교적 좋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50 미만이면 체감경기가 나빠진다는 의미다. 이 광공업 생산확산지수가 9개월째 50 아래에서 맴돈다. 거의 1년 가까이 생산 감소업종이 더 많다는 의미다. 2016년과 비교하면 늘림에도 체감경기 상황은 더욱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2016년 광공업 생산확산지수가 50 이상을 기록한 달은 1년의 절반인 6개월이었다.

고용에 좋은 제조업, 특히 광공업엔 그림자가 짙다.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다. 통계청의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12월에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자동차·기계장비 등 제조업의 하락이 원인이다. 그러면 제조업평균 기동률도 0.7%p 하락한 71.9%

만들어진다. 제조업 생산과 광공업 체감경기가 이처럼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같은 간단하고 쉽다. 기업들이 좀처럼 만들면 된다. 가장 빠른 길은 규제완화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칼럼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북한의 근본의도



임용호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지구촌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40일전 북한 김정정은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를 위한 유화(友好) 제스처(Gesture)를 보였다. 남?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해 온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겉으로 밀월(密月)의 장(場)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북한의 속내는 올림픽 참가를 방자하여 다양한 목적을 두고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민감한 반응, 40여명의 선수단보다 15배 이상이 되는 600여명의 공연과 예술단의 편성, 개최식 전날 평양에서 대규모 군 열병식준비, "인기 없는 대회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는 등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을 병행하며 양면(兩面)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순수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공존체 건설 및 민족통합에 관한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전과 북한체제 홍보방이 되어가는 본말전도(本末顛倒)의 상황이 매우 위험스럽고 안타가울 따름이다.

북한은 예술단 편성을 앞세워 대남공세를 거칠게 밀어붙일 태세인데 애초부터 선수단 구성은 별 관심이 없었고, 예술단 공연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교란시키고 북측의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다.

북한 김정일은 "음악이 때로는 수천, 수만의 총포를 대신했고 수백, 수천만분의 식방을 대신했다"고 말할 정도로 예술단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1985년 보천보 전지작단을 필두로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화가 활동했던 만수대 예술단으로 이어진 모란봉악단과 삼지연관현악단은 김정은이 평

상시 친솔(親率, One's family)하는 예술단체이기도 하다.

이를 보내어 노래폭탄으로 올림픽 잔치상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이다. 굳이 서울까지 북한의 예술단을 불러들여 부상화와 찬양, 선전막걸리를 볼 이유가 없다고 보며 김정은이 파견할 예술단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고 사회를 이간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음도 간파해선 안 된다.

북한의 모든 초점은 4년 전 "조국통일을 이룬다고 목표를 정한 날"인 북한창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99월에 맞추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날을 클라이맥스(Climax)로 삼아 모든 것을 올인(All-in)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평창 동계올림픽이후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고 주한 미군철수 및 한?미 동맹 와해와 해체를 통해 종국(終局)으로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점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행태는 절정을 치닫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여론관리를 바로 못하고 일선사(Manage)를 잘못하다가 간첩상(間諜)이 제사상을 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북한의 양두구육(羊頭狗肉)적 교활함과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폐쇄와 폭정이며, 외부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이다. 그들의 체제유지 필수조건으로 온 국민을 아사시키면서까지 개발한 핵과 미사일은 절대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 완성후 군사적 우위의 자신감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겁박할 것이다. 한국을 지렛대로 삼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며 한미동맹 이간질과 와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은 계절상 따뜻한 봄날인데 남?북 상황은 거꾸로 냉랭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북한은 말도 안되는 억지의 주장을 내세울 수도 있다. 해안(海峽)을 가지고 예견(豫見)해서 사전 대비해야 한다.

김정은 신년사 중 '핵무기 연구 부인과 로켓 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 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라는 아주 짧은 고도 분명한 표현은 북한 속세의 핵심이자 전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개편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기고



윤정원 천안동남서원성파출소 경위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인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79.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였고,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아동학대에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24개 직군 종사자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와 계절에 맞지 않거나 터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고준희양은 가정애고립된 채 세상을 떠났지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발견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결합해 준희양의 고통을 제때 포착하지 못한 점이 더욱 안타깝게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방은 사회적 접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편과 함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경미한 학대라고 해도 상담이나 교육, 심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른신문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Daedong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website information.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무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더 큰 생각을 하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상 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00*550*1900

작품특징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더 큰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리모델링
Artschool | LOVE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 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북청사, 지암초, 한림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간암초등학교 | 거제대남 | 월랑초등학교 | 동상 |
| 도암초등학교 | 동진 | 속초삼다리 유자원 | 사제상 |
| 나래초등학교 | 사제상 | 석성초등학교 | 가목사상 |
| 석양초등학교 | 사제상, 가학당초, 가학당 | | |

조형물 / 조형사업 전문기업 인증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사업
041.733.9558
www.hd-space.com